

청소년 전환기 아동의 학업수행능력과 학업스트레스 간 관계에서 그릿의 조절효과^{*}

김민정^{**}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Pan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13차(초등학교 6학년)의 자료 분석을 통해 청소년 전환기 아동의 학업수행능력과 학업스트레스 간 관계에서 그릿(Grit)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전체 2,150 사례 중 변수들의 결측값이 없는 자료를 추출하여 최종분석에는 565 개의 사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수들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그릿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학업수행 능력과도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그릿은 학업수행능력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청소년 전환기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그릿은 청소년 전환기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청소년 전환기 아동의 그릿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수행 능력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청소년 전환기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향상을 돋기 위한 교육정책,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학업수행능력, 학업스트레스, 그릿, 조절효과

논문 투고일: 2025. 11. 19. 최종심사일: 2025. 12. 04. 게재확정일: 2025. 12. 26.

* 이 논문은 한남대학교 2025년도 교비학술지원비를 받아 수행한 연구임.

**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Kim, Min jung, 70, Hannam-ro, Daeduck-gu, Daejeon, korea. 34430. E-Mail: mjkim@hnu.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점점 더 높은 학업적 기대와 경쟁 압력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 이는 특히 최근 세는 나이로 5세아가 유아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레벨테스트를 시험을 치르고,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는 유명 초등수학,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치른다는 사회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선행학습의 저연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의대 중원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의대 진학을 위한 선행 학습이 유아·아동기 부터 사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통해서 더 명확히 드러난다 (Sbs 8시뉴스, 2023, 2.23; 2025 4.30). 이렇듯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어린 시기부터 치열한 학업경쟁 환경에서 자라면서 학업수행능력이 뛰어날 것에 대한 압박을 받으며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교육과열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기도 하고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한다(Financian News, 2023. 5.4; 조선일보, 2025 10.15).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는 학업과 관련된 요구와 개인의 대처 능력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긴장 상태인데(유성은, 2002) 학업스트레스는 적정 수준일 경우에는 학업 수행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나 반대로, 그 정도가 과도하고 만성적일 경우에는 학생의 집중력을 낮추고, 학업에 대한 동기유발을 방해한다(김민정, 2025; 박성희·변은경, 2022; 구경호·김석호, 2014; 정주영, 2010). 또한 학업 외 활동과의 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겪게 하고 우울이나 불안 증세를 겪게 한다(유병기, 2011; 정주영, 20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을 ‘학업수행 문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초등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중고생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점점 더 저연령화되어 초등학교 시기에서부터 경험하고 있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손승희·정지나, 2021).

이러한 가운데 특히 중학교 입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시기는 발달면에서 신체적·심리적으로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정서적인 불안도 높아지는 사춘기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

기이다(이정미 · 양명숙, 2006; Dishion & Kavanagh, 2002). 학업적인 면에서는 중학교 입학을 바로 앞둔 상황이어서 이전 시기보다 학업수행 능력에 대해 성취 압박을 더 많이 받으며 높은 수준의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한다(김소희 · 박정윤, 2025; 손승희 2025; 염선영 · 이강이 · 2012;). 더욱이 이 시기는 성인기보다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더 미숙하고 이 시기에 느끼는 학업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이후 청소년 시기의 정신위생과 학업수행 능력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손승희 · 정지나, 2021; 정영미, 2021).

한편, 이와 같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전환기 아동이 학업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와 그 영향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개개인이 느끼는 학업스트레스의 정도와 이에 따른 학업수행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이현주 · 한경아, 2021; 김연화, 2010). 즉,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학생은 학업스트레스를 더 높게 느끼고 이에 따른 결과로 학업수행 결과가 좋지 않거나 심리 ·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또는 부적응 문제를 보이는 반면(박기령 · 신동윤, 2018; 김연화, 2010), 어떤 학생은 학업스트레스를 느끼더라도 상황에 잘 적응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학업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힘든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을 보이기도 한다(강영배 · 송원일, 2022; 선우성경, 2019; 추병완, 2017; 강남욱, 2012)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잘 관리하고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로 부터 회복탄력성을 잘 발휘하도록 작용하는 심리 · 정서적 보호요인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즉, 학생이 학업스트레스를 느끼더라도 학생 개개인마다 학업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차이를 설명하는 심리 · 정서적 요인들 중 그릿이 연구의 주요 관심 주제가 되고 있다(김정은 · 이수란 · 양수진, 2018). 그릿은 장기적 목표를 향한 열정과 인내를 의미하며, 두 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는 ‘관심의 일관성’으로 시간이 지나도 동일한 관심사와 목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는 ‘노력의 지속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Duckworth & Quinn, 2009;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이러한 그릿은 최근 교육 분야에서 인지적 요인과는 별개로 학업수행 능력의 향상과 성취를 예측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과 성취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수란과 손영우(2013)의 연구에서는 그릿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학업수행 정도가 높았으며 이정립과 권대훈(2016)의 연구에서는 그릿이 학업수행 능력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정적방향으로 나타났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의 선행연구들에서도 그릿이 높은 학생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경향이 있어,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학업수행과 관련한 목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학업수

행 능력이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강보은, 2021; 윤미리 · 이현정 · 홍세희, 2020; 홍민성 · 이수란, 2019; 류영주 · 양수진, 2017; Duckworth & Quinn, 2009; 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와 Quinn(2009), Rojas(2015)의 연구에서는 그릿과 학업 성적 간에 정적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그릿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학업 성취가 높게 나타났음을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그릿은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6)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수행 능력 사이에서 이들의 역할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이에 그릿,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수행능력 간의 관계는 긴밀하며 통합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나 아직 이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6)을 대상으로 한 학업수행 능력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학습자의 학업스트레스, 그릿, 학업수행 능력이 서로 유기적 관계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변수들과의 관련 정도만을 주로 살펴보고 있고(황매향, 2019; 이정립 · 권대훈, 2016; 이수란 · 손영우, 2013)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수행 능력과의 관계에서 그릿의 조절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입학직전인 초등 6학년 청소년 전환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업 스트레스, 그릿, 학업수행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6)의 학업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이후 시기의 학업수행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 6)의 학업스트레스 및 그릿과 학업수행능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 6)의 학업수행능력과 학업스트레스 간 관계에서 그릿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 6)의 학업수행능력과 학업스트레스 간 관계에서 그릿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아동패널(PSKC(http://panel_kicce.re.kr))의 13차년도(초 6학년) 2,150개의 자료 중 본 연구의 변수들에서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제외한 565개의 사례를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학업수행능력

학업수행 능력은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담당하는 담임교사가 평가한 교과별 수행 수준을 바탕으로 측정되었다. 한국아동패널 13차년도 자료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전반 등 총 7개 문항으로 학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이은해 · 김명순 · 전혜정 · 이정림 · 이윤선 · 김주혜 · 조수영 · 정주희, 2008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초등 2학년부터 해당 척도를 참고하여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한국아동패널, http://panel_kicce.re.kr). 본 연구에서는 학업수행 능력의 기초학업 성취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의 5개 핵심 교과 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하위 20% 이내(1)”에서 “상위 20% 이내(5)”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교과에서 아동이 보이는 상대적 수행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5개 과목 점수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학업수행능력 지표로 활용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학업수행능력 척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960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아동이 학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압박감과 심리적 부담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3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 (<https://www.nypi.re.kr>)의 초4패널(2004-2008), 중2패널(2003-2008)에 출처의 근거를 두고 있다(한국아동패널, http://panel_kicce.re.kr). 구체적 문항은 “학교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와 같이 학업에서 유발되는 긴장과 부담을 반영한다. 응답은 “그런 적 없다(1점)”~“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3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학업스트레스 점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과 관련된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 결과, 초등 6학년 시점의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02로 나타났다.

(2) 그릿

김희명과 황매향(2015)이 타당화한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릿은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향을 평가한 척도로,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에서 벗어난다’,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나는 노력가이다’,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나는 부지런하다’의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한국아동패널, http://panel_kicce.re.kr). 역코딩이 필요한 문항(1,3,5,6번)은 역코딩 하였다. 이후 8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그릿 점수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초등 6학년 시점의 그릿 척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694로 다소 낮으나 이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비약적 해석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학업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성별이 학업성취와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한건수, 2023; 김민정, 2019; 김양분 · 임현정 · 김난옥, 2012) 부모의 학력 수준 또한 아동의 학업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2025, 재인용; 김광혁, 2019; 김성식, 2019; 김진미, 2019).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남=0, 여=1)과 부모 학력(고졸 이하=0, 대졸 이상=1)을 회귀분석에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3. 분석방법

먼저 주요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Pearson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위 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PSKC 13차 자료 전체 2,150명 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학업스트레스, 그릿, 학업수행능력, 성별, 부모 학력)에 결측값이 있는 사례를 제외하여 완전자료분석(listwise deletion)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총 565개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화하고 상호작용항의 해석력을 높이기 위해 학업스트레스와 그릿 변수는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성별과 부모 학력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의 주효과를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그릿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경우 효과의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simple slopes)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수행능력 간 관계가 그릿 수준(-1 SD, 평균, +1 SD)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각화한 상호작용 그래프도 함께 제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28과 R 통계 소프트웨어(version 4.3.0)를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조절효과 검증 및 단순 기울기 분석에는 R의 interactions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추가적으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진단을 실시하였다. 공차 및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검토한 결과,

모든 예측변수의 VIF 값은 2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수들간 상관관계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 6) 565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전환기 청소년(초 6) 학업스트레스는 그릿과 중간 정도의 부적상관관계($r=-.398$, $p<.01$)가 나타났으며, 학업수행 능력과도 부적상관관계 ($r=-.161$, $p<.01$)를 나타냈다. 한편, 그릿은 학업수행 능력과 정적상관관계($r=.129$, $p<.01$)를 보였다.

<표 1>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N=565)

변수	1	2	3
1. 초 6 학업수행능력	1.00	-	-
2. 초 6 학업스트레스	-.161**	1.00	-
3. 초 6 그릿	.129**	-.398**	1.00

** $p<.01$

2.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 6)의 학업수행 능력에서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의 조절효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는 통제변수만(아동성별, 부, 모 최종 학력)을 포함하였는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학업수행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였다. 부와 모의 학력에서는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 6)의 학업수행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로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 6)의 학업스트레

스와 그릿을 추가 하여 주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 6)의 학업스트레스 ($\beta = -.116$, $p = .006$)와 그릿은($\beta = .105$ $p = .012$)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 6)의 학업수행 능력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수행 능력은 낮아지고 그릿이 높을수록 학업수행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 6)의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의 상호작용항을 통하여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상호작용항을 보면 그릿의 상호작용항($\beta = .071$ $p = .044$)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 6)의 그릿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수행능력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아동성별, 부 학력,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 6)의 학업스트레스, 그릿이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 6)의 학업수행 능력에 영향을 주며 특히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 6)의 그릿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수행 능력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초 6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에서 초 6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의 조절효과

		Confidence interval						
		변수명	β	SE	Standardized β	t	lower	upper
1단계	아동성별	0.256	0.079	0.132	3.233***		0.100	0.411
	모학력	0.166	0.107	0.077	1.550		-0.044	0.376
	부학력	0.387	0.106	0.183	3.652***		0.179	0.595
	$F=15.093^{***}$, $R^2=0.075$, Adjusted $R^2=0.070$							
2단계	아동성별	0.295	0.078	0.152	3.772***		0.141	0.448
	모 학력	0.122	0.105	0.057	1.162		-0.085	0.330
	부 학력	0.392	0.104	0.185	3.767***		0.188	0.597
	학업스트레스(초6)	-0.116	0.042	-0.120	-2.740**		-0.199	-0.033
3단계	그릿(초6)	0.105	0.042	0.111	2.533*		0.224	0.187
	$F=13.910^{***}$, $R^2=0.112$, Adjusted $R^2=0.104$							
	아동성별	0.298	0.078	0.154	3.821***		0.145	0.451
	모 학력	0.107	0.105	0.050	1.013		-0.100	0.314
	부 학력	0.400	0.104	0.189	3.845***		0.195	0.604
	학업스트레스(초6)	-0.114	0.042	-0.117	-2.687**		-0.197	-0.031
	그릿(초6)	0.122	0.042	0.129	2.888**		0.039	0.205
	학업스트레스(초6) x 그릿(초6)	0.071	0.035	0.083	2.020*		0.002	0.140
		$F=12.336^{***}$, $R^2=0.118$, Adjusted $R^2=0.108$						

* $p < .05$, ** $p < .01$, *** $p < .001$, **** $p < .0001$

<표 3>은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그릿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이다.

그릿이 낮은 수준(-1 SD)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수행능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eta = -.17$, $p < .001$). 즉, 그릿이 낮은 아동일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질 때 학업수행능력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 평균 수준의 그릿(M)에서도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수행능력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10$,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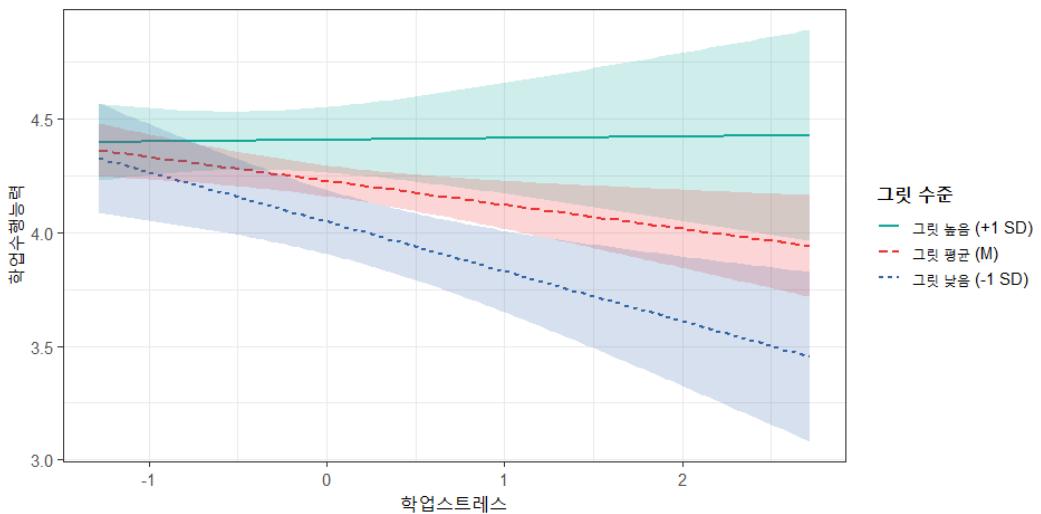
반면, 그릿이 높은 수준($+1\text{ SD}$)에서는 학업스트레스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4$, $p = .49$).

<표3> 단순 기울기(Simple slopes) 분석 결과

그릿수준	스트레스→학업수행능력 기울기 β	SE	t	p
-1 SD (그릿낮음)	-0.17	0.05	-3.37***	<.001
평균(M)	-0.10	0.04	-2.58**	<.01
+1 SD (그릿 높음)	-0.04	0.05	-0.69	.49

** $p < .01$, *** $p < .001$

[그림 1]은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그릿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릿이 낮은 집단(-1 SD)은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학업수행능력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그릿이 평균 수준인 경우에도 스트레스는 학업수행능력을 감소시키지만,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하였다. 그릿이 높은 집단($+1\text{ SD}$)에서는 스트레스가 증가하더라도 학업수행능력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그래프 패턴은 높은 그릿이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요인으로 기능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그림1]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6) 학업수행 능력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의 조절효과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6)의 학업수행 능력에서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아동패널(Panels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13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 6)의 학업스트레스와 그릿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들 사이에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윤경(2025), 김은경(2023), 김진철과 김성천(2023), 강신영과 문혁준(2021), 공영숙과 임지영(20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거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학습자의 학업스트레스는 낮추고 그릿 수준은 높일 수 있는 접근이 학습자의 학업수행능력 향상을 물론, 심리정서적 건강 향상에 까지 중요함을 시사 받을 수 있는 결과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 6)의 학업스

스트레스와 학업수행 능력을 살펴본 결과, 이들 사이에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아동이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학업수행 능력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아동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가 부적상관 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구경호·김석우, 2014; 김아영 외, 2012; 정주영, 2010; Pascoe, M. C., Hetrick, S. E., & Parker, A. G., 2020). 이는 학습자의 학업수행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업스트레스 감소는 물론 건강한 정서관리가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확인해 주는 결과임을 시사한다. 즉, 학습자의 정서가 안정되어야 학업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학생의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 6)의 그릿과 학업수행 능력을 살펴본 결과, 이들 사이에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김랑과 문혁준(2022)의 연구에서 동일 패널을 대상으로 하되 초 4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아동의 그릿은 학업수행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제시한 연구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는 아동의 그릿, 학업수행 능력은 불변하는 특성이 아니고 인생에서 이의 측정 시기, 발달 단계나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변수이기에 본 연구의 초등 6학년 대상의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학습자 발달단계에 따라 그릿과 학업수행 능력의 변화를 추적해 볼 필요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둘째, 청소년 전환기 아동(초 6)의 학업수행 능력에서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전환기 청소년(초 6)의 그릿이 이 시기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수행 능력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수행능력 간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은 전환기 청소년(초 6)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수행 능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전환기 청소년(초 6)의 그릿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즉, 그릿이 높은 학생은 학업스트레스가 있어도 학업수행 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그릿이 낮은 학생은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수행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그릿은 학습자의 학업수행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수행 능력 사이에서 학업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과 자녀의 인지적 성장과 발달 뿐만아니라 그릿을 비롯 비인지적 요인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학업수행 능력에 영향을 주는 학생의 여러 정서적 요인을 건강하게 지지해 줄 프로그램개발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학생이 학업에 대한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도록 지원하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학업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려는 노력 뿐 아니라 방해하는 요인의 영향 정도를 낮추어 줄 수 있는 보호요인을 강화해 주는 접근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학업수행 능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심리·정서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변수들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바에 따를 그릿의 속성을 보면 그릿은 단순히 개인의 수행 능력에 한정된 성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 포괄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이다(김정은 외, 2018). Duckworth(2016)는 그릿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일을 찾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결정하고 계속할 때, 흥미가 열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김정은 외, 2018, 재인용). 따라서 가정과 부모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자녀 또는 학생이 스스로 원하고 좋아하는 일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릿을 길러주는 것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크다 하겠다. 이를 통해 그릿은 학업 관련한 부정적 정서 완화의 역할을 넘어서서 한 개인이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삶의 도전 과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심리·정서적 요인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그릿과 관련하여 추후 연구에서 그릿이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수행능력 간에 조절하는 역할을 함에 있어 그릿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인 노력의 꾸준함과 흥미의 지속성 중 어떤 하위 요인이 학업관련한 부정적 정서와 학업수행능력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릿에 대한 선행연구 가운데에는 그릿을 구성하는 요하위 요인 중 노력 지속만이 학업수행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진아, 2020, 재인용)도 있었으며 그릿에 흥미 유지와 노력 지속 둘 다 포함하여 전체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임효진, 2018; 황매향, 2019). 또한 인내와 관련한 노력의 꾸준함과 관련한 그릿과 열정에 해당하는 학습에 대한 흥미의 지속성과 관련한 그릿은 학생의 학업수행 중 느끼는 부정적 정서와 학업성취 간에 그 역할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국아동패널 자료 전체 사례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 매우 작으며(기초생활수급권자에 속하는 사례 수가 매우 적었음을 확인함), 게다가 이 연구에서는 결측치가 없는 사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고 이 연구 분석에 활용된 사례(13차 자료)의 부모 학력을 보면 부의 68%, 모의 71%가 대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대상은 중산층 이상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후속연구들을 통하여 다른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패널자료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봄으로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현

- 강남욱(2012). 회복탄력성, 스트레스요인,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상관성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신영 · 문혁준(2021). 부모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그릿, 학업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육연구**, 21(20), 431-443.
- 강보은(2021). 부모의 그릿이 자녀의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 자녀 그릿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혁신 연구**, 31(3), 409-435.
- 강수정(2025). 초 · 중등 전환기의 신체활동 빈도가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그릿과 학업스트레스의 다중 직렬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9(1), 115-133.
- 강영배 · 송원일(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7(3), 61 -83.
- 공영숙 · 임지영(2021).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그릿, 집행기능 곤란 및 미디어기기 과의존 간의 구조적 관계. **가족과 환경 연구** 59(3), 387-400.
- 구경호 · 김석우(2014).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탄력성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4(8), 69-89.
- 김광혁(2019). 가구소득이 학업성취, 우울불안,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청소년 대상 패널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5, 1-27.
- 김랑 · 문혁준(2022). 어머니 양육 행동과 아동의 그릿, 전반적 행복감, 학업수행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5), 641-653.
- 김민정(2019). 초등학교 입학 전 학습준비도 및 학업수행 관련 변인들이 초등저학년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변화 추이. **한국가족복지학**, 24(4), 501- 518.
- 김민정(2025). 초등고학년 아동의 학업관련 정의적 요인이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업스트레스, 자율성, 학업동기를 중심으로-. **부모교육연구**, 22(1), 47-63.
- 김성식 (2019).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학업수행에 대한 가정 배경, 유아시기 교육경험, 학생- 교사관계 변인의 영향. **초등교육연구**, 32(1), 15-36.
- 김소희 · 박소윤(2025). 부모의 성취압력이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의 삶의 만족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아동패널 13차 자료 이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4), 1099-1112.
- 김아영 · 차정은 · 강한아 · 임경민 · 전현아 · 조혜령 · 임지영 · 석혜은(2012). 학업능력 집단별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조절효능감 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6(2), 543-562.
- 김양분 · 임현정 · 김난옥.(2012). 학업성취에 대한 학급 및 교사 요인의 영향. **한국교육**- 39(2), 157-179.
- 김연화(2010). 아동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2), 287-307.
- 김은경(202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후기 아동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그릿(Grit)과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27(3), 1-16.

- 김정은 · 이수란 · 양수진(2018). 한국형 그릿(Grit) 특성에 대한 고찰: 높은 그릿 집단의 다차원적 유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2), 131–151.
- 김진미(2019). 학교준비도가 취학 이후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소득 계층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8), 1111–1130.
- 김진아(2020). 청소년 초기의 그릿(Grit) 발달의 영향요인과 결과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27(1), 93–116.
- 김진철 · 김성천(2023). 아동의 그릿과 학습태도, 학업스트레스, 전반적 행복감 간의 관계구조 연구. *육아정책연구*, 17(1), 99–120.
- 김희명 · 황매향(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의 타당화. *교육논총*, 35(3), 63–75.
- 류영주 · 양수진(2017). 내재적 · 친사회적 동기와 삶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Grit)과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4), 93–115.
- 박기령 · 신동윤(2018). 청소년 회복탄력성 증진 집단프로그램 내용분석(1999–2016). *청소년학연구*, 25(4), 199–224.
- 박성희 · 변은경(2022). 간호여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기술의 융합*, 8(4), 99–106.
- 선우성경(2019). *초등학교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 손승희 · 정지나(2021).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30(5), 761–770.
- 손승희(2025). 부모의 성취압력이 중학생 자녀의 전반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녀가 느끼는 사교육 부담감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34(4), 545–554.
- 엄선희 · 이강이(2012).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 지각과 학교적응.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24(3), 89–100.
- 오윤경(202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스마트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의 다중 매개효과. *가정과 삶의질 연구*, 43(1), 1–10.
- 유병기(2011). 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 1(1), 33–43.
- 유성은(2002). 아동이 지각한 학업스트레스 정도와内外통제 소재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란 · 손영우(2013). 무엇이 뛰어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과 끈기(Grit).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349–366.
- 이은해 · 김명순 · 전혜정 · 이정립 · 이윤선 · 김주혜 · 조수영 · 정주희(2008).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 서비스에 대한 종단적 효과 연구. 미발간.
- 이정립 · 권대훈(2016). 통제소재, 마인드셋, 그릿,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3(11), 245–264.
- 이정미 · 양명숙(2006).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 가정 및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7(3), 865–884.
- 이현주 · 한경아(202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조형교육*, 77, 173–199.

- 임효진(2018). 단기 종단자료를 이용한 그릿 요인구조의 안정성 연구. **교육학연구**, 56(4), 77-102.
- 정영미(2021).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학업수행능력의 매개효과. **인문 사회**, 12(1), 2777-2789.
- 정주영(2010).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분석. **한국교육연구 구**, 16(1), 129-152.
- 조선일보(2025.10.15), '대치동 정신과' 손성은 원장, 4세 고시 지적 "이른 시험 부담감, 오히려 자극 <http://www.chosun.com>
- 추병완(2017). 회복탄력성(Resilience) 학교, 가정, 군대에서의 실천 전략. 서울: 도서출판하우.
- 통계청(2021).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대전: 통계청.
- 한건수(2023).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학령기 아동의 성별 및 운동참여 여부에 따른 학업수행능력 및 학업동기의 차이분석. **문화와 융합**, 45(4), 847-857.
- 한국아동패널(PKSC). 아동패널조사. 13th(2020). http://panel_kicce.re.kr.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_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패널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4패널(2004-2008), 중2패널(2003-2008), <https://www.nypi.re.kr/>
- 황매향(2019). 학업상담에서의 그릿의 의미와 증진 방안 탐색. **초등상담연구**, 18(1), 1-21.
- 홍민성 · 이수란(2019). 그릿과 성실성이 학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 동기의 매개효과. **한국융 합학회논문지**, 10(10), 143-151.
- Duckworth, A. L. & Quinn, P. D.(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 Duckworth(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New York, NY: Simon and Schuster.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Dishion, T. J., & Kavanagh K. (2002). The Adolescent transitions program: A family-centered theadolescent transitions program: A family-centered prevention strategy for schools. In J. B. Reid, J.J. Snyder, & G. R. Patterson(Eds.),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developmental analysis and the Oregon Model for Intervention, (257-27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inancian News. (2023. 5.4)학원가 초등생 의대 입시반 열풍, <http://www.fnnews.com/> news
- Pascoe, M. C., Hetrick, S. E., & Parker, A. G.(2020). The impact of stress on students in secondary school and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25(1), 104-112.
- Rojas, J. P.(2015). **The relationships among creativity, grit, academic motivation, and academic success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entucky. Lexington: KY.
- Sbs(2023, 2.23). '고 3과정 이미 끌냈어요' 의대준비'는 초등부터, 초등의대반 성행,

<https://news.sbs.co.kr/news>

Sbs(2025 4.30). D 리포트: 초등의대반. 7세고시 2023 2 23 입력성 행해도 교육청은 ‘현황 없음’.

<https://news.sbs.co.kr/news>

Abstract

The Moderating Role of Grit in the Association Between Academic Performance Ability and Academic Stress Among Early Adolescents

Kim, Min Ju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oderating role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performance ability and academic stress among children transitioning to early adolescence. Utilizing data from the 13th wave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565 cases selected from an initial sample of 2,150, after excluding observations with missing valu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academic stress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both grit and academic performance, whereas grit exhibits a positive association with academic performance. Moreover, academic stress and grit each exert significant effects on academic performance. Importantly, gri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performance, attenuating the negative impact of academic stress. These results offer valuabl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olicies, programs, and services designed to enhance academic performance among children at the threshold of adolescence.

Keywords : academic performance ability, academic stress, grit, moderating effect

* Hannam University,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Guidance, Professor